

200자 안내

스탈린혁명

R.V. 대니엘즈 엮음 / 석영중 옮김

1920년대 후반 소련사회의 모든 국면에 걸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사회개혁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글들을 한데 모은 논문선. 이른바 '스탈린혁명'의 원인과 배경, 진행양상, 결과, 궁극적 의미들에 관한 주요문헌 20여편을 4부로 나누어 실었다. 스탈린 자신의 글을 비롯, 부하린·트로츠키·흐루시초프 등의 글들이 특히 흥미를 끈다.

신서원 / A5신 / 306면 / 4000원

정복자 펠레

마틴 앤더슨 벵쇠 지음 / 박봉숙 옮김

영화로도 잘 알려진 덴마크작가 벵쇠의 자전적 소설. 19세기말 격변기의 북유럽을 배경으로 소년 펠레와 그의 아버지 탓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덴마크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운동 및 정치적 변혁 등 당대의 시대상황도 리얼하게 묘사돼 있다. 표제의 '정복자'는 노동운동가로서의 성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정복한다는 뜻.

타임기획 / A5신 / 350면 / 3800원

지혜의 깊이

보카르 림포체 외 엮음 / 최은숙 옮김

티벳의 불교성인 보카르 림포체와 그의 제자 겐포 드뉴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가졌던 '분노'와 '인파옹보'에 관한 법문 및 「반야심경」해설을 한데 묶은 책. 이제까지의 큰스님 법문이나 「반야심경」해설과는 달리, 불교의 난해한 개념들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소화시켜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 이끈다.

山房 / A5신 / 118면 / 2000원

세상이 바람아

徐萬得 지음

한국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정치인이자 시인, 수필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저자의 시사칼

럼집. 신문·잡지 등에 발표했던 글 70여편을 추려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가진자와 권력자를 향한 매서운 질타와 민초들의 애환을 감싸안은 따뜻한 인정이 잘 드러나 있다. 도덕성회복과 더불어사는 공동체의식의 각성이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시대문학사 / A5신 / 260면 / 3500원

새들은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정찬주 지음

「한국문학」 신인상을 통해 문단에 나온 작가의 신작소설집. 광우항쟁의 비극을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겨울南行」 「취방울꽃」 「풍경」을 비롯해 「북으로 흐르는 강」 「無門寺에 가서」 「그림자와 칼」 등 모두 9편의 작품을 한데 묶었다. "서정적 리얼리즘이 보여주는 온기와 감동"을 그의 특장으로 꼽는 평론가 송희복의 해설을 권말에 수록했다.

풍경 / A5신 / 270면 / 3300원

두 체제를 잇는 가교

대전덕·고왕인 엮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체제를 잇는 가교로서 '토지'와 '공동체'에 기반을 둔 성서적 경제사상을 제시한 책. 동서체제 뿐 아니라 제1세계와 제2세계,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분단체제 등을 잇는 가교로도 편자들은 이 성서적 경제사상을 제시하는데, 「진보와 빈곤」으로 잘 알려진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론적 준거틀로 삼고 있다.

무실 / B6 / 176면 / 2200원

사회주의혁명론 (2)

크라신 지음 / 강미숙 옮김

레닌의 사회주의혁명이론의 제문제를 레닌과 논쟁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비교하면서 추적, 그 역사적 의미를 규명한 연구서. 레닌의 명제를 역사적 교조로 삼는 입장을 피하면서, 특히 스탈린에 의한 레닌이론의 왜곡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책 뒤에 일인학자 이시도 기요도모의 해설을 번역, 수록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과학과사상 / A5신 / 276면 / 3500원

비즈니스 해외여행

대한무역진흥공사 엮음

국제화, 개방화 추세와 함께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교역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비즈니스를 겸한 해외여행시 도움이 될 만한 현지정보를 나라별로 수록한 안내서. 각국의 최근 무역동향을

비롯,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비즈니스 수행상의 유의점, 비즈니스타임 및 공휴일 등 상거래정보들이 폭넓게 소개돼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 B6 / 478면 / 4000원

두 문화 속의 한국교육

심영섭·이종각 지음

한국인이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한인학생의 국민교육에 관한 특수한 사례를 보고하고 그 의미를 진단한 책. 이란의 '테헤란 한국학교'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3년간 교사생활을 했던 심영섭(춘천중 교사)의 경험과 자료를 이종각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이 정리, 분석했다. 가장을 따라 외국에 일시 체류하게 된 한인학생들의 교육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文音社 / A5신 / 170면 / 2000원

지방자치제와 지방정치

이만수 지음

바야흐로 우리사회에서도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이념과 역사, 그 의의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해본 책. 민주주의의 뿌리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의,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그 실시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단하고, 지역운동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다.

웅비사 / A5신 / 314면 / 4000원

영원의 바다로 가는 새벽기차

김정빈 지음

仙道소설 「丹」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신작 에세이집으로 '궁극목표와 길의 요청' '길의 선택을 위한 예비' '2차적인 길들을 넘어서' '신의 길을 넘어서'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1989년 5월23일 오전 10시37분12초로부터 이 책의 집필작업이 끝날 어느날 시분 초까지의 현재, 시공의 제약을 받는 김정빈이라 불리는 한 인간이 일으킬 일련의 생각들의 진술"이란 것이 이 책에 대한 작가의 말.

홍익 / A5신 / 250면 / 3800원

결혼과 가족관계

이정우·김명자·계선자 지음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가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성공적 결혼생활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다룬 책.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해명한 제1부 '가족의 이해'를 비롯, '이성교제와 결혼' '가족간의 인간관계' '가정

생활과 법률' 등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숙명여대출판부 / A5신 / 444면 / 6000원

오래 삼시다

윤방부 지음

현대인의 건강문제를 정확하고 친절한 필치로 진단한 가정의학 에세이집. 한국인들은 건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막상 그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비합리적, 비과학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저자(연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그같은 오해와 무지를 불식하는데 주력한다. 가정의학과 건강계획의 문제를 비롯, 과학적 방법에 의한 건강관리의 요령들이 소개돼 있다.

동서문학출판부 / A5신 / 326면 / 3800원

마르크스·엔겔스와 민족문제

임지현 지음

민족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사상적 진화과정을 추적한 책. 마르크스주의가 민족문제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 이론적 변수와 마르크스주의의 다양한 전략전술을 규정짓는 기준을 구명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이끈다.

탐구당 / A5신 / 332면 / 6500원

중국사 개설

松丸道雄 외 지음 / 조성을 옮김

4명의 저자가 펴낸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를 옮겼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역사를 개설적으로 서술하면서 동시에 도판을 곁들여 쉽게 이해하도록 한 책이다. 중국사를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룬 개설서로서 나무랄 데 없는 책이나 일본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엮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는 것이 역자의 말. 모두 4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국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한울아카데미 / A5신 / 412면 / 6000원

한국지방자치론

金基玉 지음

1952년부터 9년간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앞두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를 연구한 책. '지방행정론의 이론'을 다룬 제1편 지방자치법 정해를 비롯해 부단체장의 권한강화모형, 지방자치이론의 새 시각 등 3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제도의 보완 일 뿐임을 역설하고 있다. 지방행정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저자의 시각이 날카롭다. 부록으로 '지방선거전략'을 실었다.

政經社 / A5신 / 532면 / 10000원

모범판매원 실전교본

朴達圭 지음

등록된 것만도 75만개소가 넘는 우리나라 유통업소의 발전 및 그 종업원의 능력개발과 동기충동에 유용한 점두판매 지침서. 판매기법의 개발과 서비스개선, 판매사원의 바람직한 매너와 에티켓, 그리고 판매사원에게 의욕과 투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풍부한 삽화와 함께 흥미롭게 소개돼 있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216면 / 3000원

韓國의 都市시스템

成俊鏞 지음

일정지역내에 포함되는 각 도시간의 기능적 연관이나 도시전체의 구조, 발달과정을 구명하려는 도시시스템의 연구서. 저자가 일본 廣島大學에 제출했던 학위논문을 정리하고, '한국 도시시스템의 형성'을 추가하여 묶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도시의 체계적 발달과 구조의 모순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이 분야 연구에 도움을 줄 책.

教學研究社 / A5신 / 338면 / 6000원

학술지

産業論集(제5권 제1호)

[연구논문] ▲신보호교역주의와 주요 개도국의 대응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郭泰運) ▲건설업 회계정보시스템의 채택에 따른 정보감응 동기유발효과의 조건과 활용에 관한 연구(朴斗泰 · 盧淳熙) ▲사회지표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분석(安斗淳) ▲미군정기 교원노동운동에 관한 일고(梁鎬) ▲분배의 공평성의 정의와 정책방향(李根植) ▲기관간 불균형 모형에 의한 재정정책과 경상수지 관계 연구(李東鎬) ▲국내 공장자동화의 현황과 과제(李湘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이익유연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李鍾大) ▲자본자산가격 결정 모델과 증권시장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Robust 예측방법의 응용(李泰克 · 許昌秀 · 韓相文) ▲영국 조세사상의 발달과정(黃義瑞) ▲Comparative Monetary Policy Regime Analysis(Chul Won Ahn)

서울시립대학 산업경영연구소 / B5 / 350면 / 비매품

연간지

여성과 사회 (창간호)

[좌담] 여성해방을 향한 문화예술운동론(김민순 · 유시춘 · 김소영 · 이해란 · 김영혜)

[특집] 변혁운동과 여성조직 ▲독일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그 조직적 전개(정현백) ▲러시아의 여성조직(정경심 · 조애리) ▲코멘테

른의 여성조직(김영희) ▲일본여성노동운동(유혜정) ▲남베트남해방여성연합의 조직과 활동(남운주)

[기획연재] ▲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현대계 노동문학의 여성문제 인식(강미숙 · 김성희) ▲새로 쓰는 여성의 역사: 중세편(김정자)

[논문]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의 상태와 문제(김혜경 · 신현옥)

[지상강좌] ▲가사노동에 대하여(김영희) ▲가사노동,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김종일 · 정영훈 · 장미경 · 변정옥)

[인물여성] ▲강경애의 삶과 문학(이상경) [외국의 여성운동] ▲서독의 새여성운동(이금운)

창작과비평사 / A5신 / 394면 / 4500원

무크

포항문학(제10호)

[특집] 아동문학 ▲아동문학의 실상과 전망(좌담: 이오덕 · 김문수 · 김경희 · 손춘익) ▲동시(고은 · 민영 · 박재삼 · 박성룡 · 신경림 · 유경환 · 이문구 · 이동순 · 이상현 · 조무근 · 최석하 · 하재영) ▲동화(김문수 · 유재용 · 손춘익 · 심후섭 · 김일광) ▲번역(콘스탄틴 파오스토프스키) ▲민담(아프리카 옛날이야기)

[평론] ▲오늘의 현실과 문학의 사명(염무웅)

[시] 김종인 / 김만수 / 김정구 / 박무근 / 송애경 / 채상근 / 임병태 / 김수일 / 윤석홍 / 박소유 / 김석춘 / 권순자 / 조순태 / 장청득 / 정차준 / 최부식 / 여국현

[소설] 이대환 / 조중의

[수필] 빈남수 / 서상은 / 이진형 / 박성준 / 박이득 / 이삼우 / 정학필 / 조유현 / 장호병 / 황기석

[자료] 포항문학 총색인
포항문학사 / A5신 / 402면 / 3500원



창간호

출판연구

한국출판연구소 엮음



1986년 개소한 이래, 출판에 관한 학술·조사·개발 등의 여러가지 연구작업을 진행해온 한국출판연구소가 半년간지 「출판연

구」를 창간했다.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출판, 출판학의 움직임과 그것들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꾀하며 아울러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을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진전시킨다는 힘든 의무를 이 기관지가 맡고자 한다”는 창간사에서 엿볼 수 있듯, 출판전문지로서의 자기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번 창간호에는 「한국출판의 연구와 교육」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가 각각 특집으로 기획되었고, 국내 최초로 조사, 보고된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가 전문수록되었다. 이밖에도 학위논문초록으로 「출판유통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이두영) 「전자출판의 미래와 전자도서관의 전망」(송민정) 등이 실려 있다.

한국출판연구소 / A5신 / 580면 / 비매품

이색출판

한글 글자꼴 2500

윤호성 지음



관련 산업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글글자꼴은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해야 할 정도로 낙후된 것이 현실.

이 책은 2649종 이상의 한글글자꼴을 독창적으로 개발, 글자꼴의 특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고 글자꼴 창작방법 및 응용에 참고가 되도록 자모획의 기본이 되는 글자꼴을 싣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모와 밑받침, 쌍자음 등의 결합실례를 비교, 이해하기 쉽도록 꾸민 이 책은 특히, 글자꼴의 칼러와 피스 및 공예글자꼴의 표현 기법도 싣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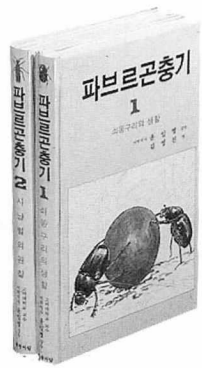
글자꼴을 비롯 펜글씨, 사인만드는 방법 등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각 글자꼴 색배합과 배경색의 조화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다.

길한문화사 / A3 / 470면 / 132000원

화제의 책

파브르곤충기(전6권)

파브르 지음 / 김영진 옮김



프랑스의 곤충학자인 파브르가 40여년간 곤충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습성, 특히 본능에 대해 관찰한 것을 기록한 「파브르곤충

기」가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곤충류의 습성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세계적인 명저인 이 책은, 어린이들이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이나 치밀한 관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쇠뿔구리의 생활을 비롯, 사냥벌 · 파리와 꿀벌 · 하늘소 · 갑충 · 매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곤충들 생활의 신비로움을 탐구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서사시”가 실려 있다.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성실한 역주를 달았고 지금의 곤충학 발전에 힘입어 그릇된 사실을 고친 것도 눈에 띈다. 제8회 한국과학 기술도서상의 번역부문을 수상했다.

대광서림 / A5신 / 각312면내외 / 각4200원